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박 인 우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Air38502@ibk.co.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국가) US
기 간	2014.12.18 – 2015.12.16	<b>[귀국일:2015년12월18일]</b>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15년 12월 24일

신청인 : 박 인 우 (인)

안녕하세요, 작년 KDI에 입학하여 현재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UCD) 에서 연수 중인 기업은행 박 인우 과장입니다. 문득, 작년 이맘 때를 생각해 보니, 슬슬 미국의 어느 제휴 대학원으로 가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학교를 선택할 때 KDI 홈페이지 內 "귀국보고서" 자료에 많이 의존 했었고,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머물고 있는 덴버 UCD의 경우 '12년도 7명, 11'년도 3명, '10년도 3명이 거쳐 가던 곳으로 '13년, '14년도에는 파견인원이 없었던 바, 타 미국 제휴대학원에 비하여 최신 정보가 다소 부족했던 기억으로, 본 연수 中 보고서가 지금 학교에 계신 연수생 분들께서, 학교 선택 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UCD의 경우, 콜로라도 州(주)의 州都(주도)인 덴버 다운타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미국 內 행정대학원 29위에 랭크되어 있는 학교로, 큰 규모의 캠퍼스와 깨끗한 환경의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DI 제휴 학생의 경우, 1년간(겨울(optional), 여름, 가을학기) 7과목을 이수하고 마지막 가을학기 때 캡스톤을 제출함으로써 학위취득이 가능한, 다소 무겁지 않은 학위취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가장 빠른 시작시간이 오후 3시부터이며, 1~2 과목의 경우 오전 9시 시작 수업도 수강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후부터 시작하는 수업 일정이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학업 시작 전 우려도 있었으나, 직접 생활을 하고 느낀 점은 오히려 오전에는 아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개인적인 용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점 같고, 미국 대부분의 지역은 저녁 7시 이후에는 특별한 외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서, 오히려 그 시간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UCD의 장점은, 봄/여름/가을 학기 이외에 1월초에 3주 동안 Intensive 수업으로 진행되는 겨울학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인 이유는, 1년간 7과목을 들어야하는 상황에서 겨울학기에 1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봄/여름/가을 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한국인 공무원 파견생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성적을 부여하거나 미국 학생들과 같은 언어 수준으로 대하지는 않는 편이며, 대체로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캡스톤의 경우, 15~20장 분량의 간략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마치게 되며, 학교의 Writing Center의 도움과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캡스톤 작성요령 강의를 수강하면, 주제선정이나 Format 등은 크게 어려움은 없는 듯 합니다.

본인은, 크게 동부의 시라큐스 대학원과, 서부의 샌디에고 대학원, 그리고 호주 및 캐나다 대학원을 놓고 많은 고민 끝에 이곳 덴버 UCD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선택의 주요 이유는, 동부의 좁고

긴 겨울과 미서부와 호주의 높은 생활비 부담, 그리고 캐나다로의 파견이 쏠(전무)한 사실로 인하여, 당시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UCD를 선택하였으나, 지금은 그 선택에 가족 모두 매우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시 2살인 아들 녀석을 고려할 때, 적당히 도시적이며 여유로운 분위기의 청정지역(?)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생각하였습니다.

3

### 주택 및 치안, 기후 등 전반적인 생활관련

주택은, 주변의 한국인의 경우를 보면 대략 APT 2Bed / 2Bath 기준으로 약 \$1,200~\$1,700 (월) 으로 생각됩니다. 주 주거지역은 다운타운 및 UCD 기준으로 5시, 6시 방향에 위치한 Aurora(20분) / Englewood(30분) / Centennial(40분) / Highland Ranch(50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로부터의 거리 순이며 괄호는 학교로부터 전철을 이용할 경우의 소요시간). 어느 지역이 좋다고 말하기는 기준이 모호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상기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거주 중입니다.

입국하여 현재까지 치안은 염려해 본 사실이 없으며, 저녁 9시 이후 마트 및 산책 등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기후는 매우 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하면 록키 산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계로 폭설과 매우 추운 날씨가 연상되기 쉬우나, 해와 하늘이 가까운 고산지대로 바람은 시원하나 햇볕은 따뜻한, 기분 좋은 날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1~2월은 전형적인 겨울 날씨로 영하 10도씨를 전후하는 추운 날도 몇일 있었으나, 이 역시 햇볕이 따뜻하여 체감온도는 기상 관측치 보다 +3~4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RTD 라는 덴버 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버스, 전철)이 잘 갖추어져 있어, 대부분의 현지학생과 한국인 공무원들은 집 인근 전철역에 차를 주차하고, RTD 전철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RTD 이용권은 매학기 등록금에 포함되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등하교시 운전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사고 개연성과 피곤함을 덜 수 있을 뿐더러, 교통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UCD 내 컴퓨터실에는 모든 PC에 한글 프로그램과 무료 프린터가 비치되어 있어, 학교 과제 및 개인적 용무 목적의 출력 등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G마켓"과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 사이트 Amazon에 UCD 학생으로 회원가입을 할 경우, 모든 제품 무료배송과 2일 이내 Quick 배송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넓은 영토를 고려했을 때, 본 혜택이 없을 경우 평균 배송기간은 10~14일 소요).

4

### 현지 물가, 한인커뮤니티 및 자동차 관련

현지 물가는 한국을 100으로 삼았을 때, ±10% 정도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한인마트에서 판매되는 한국제품 중 20~30%는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하며, 미국 대부분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옷/고기/식자재 등은 한국대비 많이 저렴한 편이나, 외식 등 서비스업의 경우는 한국보다 다소 비

싼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대비 비싼 항목들은 모두 본인의 조절 下에 통제가 가능한 항목들로, 실제 체감되는 물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곳 덴버 UCD에는 KDI에서 파견 온 본인 이외에, 안행부 주관 직접 파견 프로그램으로 온 공무원(2년 과정)을 포함하여 총 13여명이 생활 중입니다. 본인의 경우도, KDI에서 혼자 UCD로 가게 되어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도착 직후 공항에 마중 나온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고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밖에, 덴버에는 국내 의사들이 꾸준히 연수를 오고 있는 지역으로 응급상황 시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다니순"이라는 월 정기모임이 있어, 교류 및 친목도모에 있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센터 시설 및 지역 도서관 內 미국 신규 거주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회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어, 배우자 및 자녀들의 여가시간 및 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커뮤니티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홈플러스 1층 규모의 한인마트 2곳, 10곳 이상의 한인 미용실, 다수의 한인 세탁소, 각종 메뉴의 식당/반찬가게,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가게, 서점 등 중형 규모의 코리아타운과 같은 시설들이 소재하고 있어, 음식 및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은 거의 "Zero" 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발과도 같다는 자동차는 대부분 기존의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일본산 밴 (오딧세이, 시에나 등) 이나 세단 (캠리, 어코드 등)을 중고차로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운행거리를 Km가 아닌 Mile로 단위를 사용하며, 1mile = 1.6Km 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내용연수를 30만 mile(48만 Km)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첫 6개월은 약 \$800~900(덴버, 7인승 기준), 그 이후 6개월은 약 \$600~700(동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인 정비소는 2곳이 있으며, 미국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할 정도로 기술력 및 정비 실력은 매우 우수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5**

**자녀 학교생활 및 교육비**

본인의 경우, 현재 3살 된 자녀가 1명 있으며 월 \$600 정도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식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은 아직 보내지 않은 관계로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였으나, 상기 교육기관에서 정식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공무원들 자녀 대부분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방과 후 스케이트, 체험활동 등 다양한 Activity 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6**

**여가생활 및 주변관광지 소개**

UCD를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덴버는 미국 대륙의 중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남/북으로 여행하기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내선은 항공료가 매우 저렴하여 비행 편으로 이동할 경우, 가까이서 서부의 라스베이거스 및 그랜드캐년(2시간소요), 샌프란시스코(2.5시간소요), 샌디에고 및 LA(2.5시간소요)에 쉽게 다

녀울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밴쿠버, 퀘벡(3시간소요), 남쪽으로는 멕시코 칸쿤(4시간 소요), 동쪽으로는 뉴욕(3.5시간소요) 등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레저 및 스포츠” 도시답게 인근 당일로 여행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 풍부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록키 산맥의 영향으로 스키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베일”, “키스톤” 등 미국 內 유명한 스키 리조트들이 2시간 이내 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국 보고서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글처럼, KDI에서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미국 대학원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며,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 미국인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본인의 보폭 또한 달라진다는 점은 사실 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으로 조금 이른 감도 있으나, 여름 시작 전/후로 본인의 향방을 신속히 결정하고, 선택 지역에서 생활 중인 KDI 기 파견자들을 컨택하여 주택 시세 및 중고차 물색을 시작하면, 올 11~12월을 다소 여유있고 꼼꼼한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